

# 인터넷 이용과 정치참여

이효성(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동안 대학생 응답자들에 의한 포털, SNS(트위터) 이용이 그들의 선거관심과 선거활동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고찰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트위터 이용은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이용은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이용은 포털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어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이용은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선거관심은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이용은 포털이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포털 이용은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트위터 이용은 포털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어 선거관심에 그리고 선거관심은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이용은 선거활동참여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포털이용과 선거관심 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털이용은 선거관심 변인을 통해서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포털, SNS(트위터), 선거관심, 선거활동참여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난 2016년 4월 13일(수)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sup>1)</sup>는 그 어느 때 보다 갈등과 쟁점이 많은 가운데 치러졌다. 1월 6일(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로 인해 외교,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한편, 사회 구성원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은 물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구성원들이 정당이나 출마한 후보의 선거 공약이나 쟁점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선거관련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미디어 이용을 통한 비제도적 형태의 정치참여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이재신·이영수, 2009)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관심이나 참여에 대한 미디어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미디어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 문제에 대해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함(Rothenbuhler, Mullen, DeLaurell, & Ryu, 1996)은 물론, 정치를 포함한 공적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역할을 한다(Scheufele, Shanahan, & Kim, 2002). 미디어는 공동체의 주목을 필요로 하는 쟁점을 찾아내 개인으로 하여금 해당 쟁점에 대해 관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갖추도록 할 만한 정보의 제공 기능을 한다(Stamm, Emig, & Hesse, 1997). 공동체 연대와 소셜네트워크의 결여는 공동체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점(Scheufele, Shanahan, & Kim, 2002)을 감안할 때 기존 미디어는 물론 네트워크에 기반한 포털과 소셜미디어의 이용은 선거와 같은 공적활동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텔레비전과 신문 등 전통적 미디어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는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은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금희조·조재호, 2015). 자신의 필요나 관심에 따라 콘텐츠를 맞춤형하고 정보가 신속히 업데이트되며 정보비용이 현저히 감소해 인터넷은 이용자들의 정치참여에 기여할 수 있다(Bimer, 2003; Vissers & Stolle, 2014). 최근 들어서는 각종 포털과 소셜미디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분야는 정치라고 볼 수 있다(문원기·이수범, 2015). 소셜 미디어는

---

1) 20대 총선거의 결과는 야당의 승리, 여당의 패배로 귀결됐다.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이었다. 투표율은 58.0%로 집계됐는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는 18대(46.1%)나 19대(54.2%) 총선거의 투표율과 비교해 높은 결과였다.

주요 뉴스채널이나 일간지보다 더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성인의 62%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 관련 뉴스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ew Research Center, 2016). 정치참여를 높이는 SNS 이용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고찰해왔다(금희조·조재호, 2015; 김은이, 2015; 김은이·최지향, 2015). 특히 선거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은 투표율 향상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강진숙·김지연, 2013; Bond et al., 2012; Cogburn & Espinoza-Vasquez, 2011, 2011).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 등 SNS 이용은 개인으로 하여금 선거 관련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선거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선거활동 참여의 기회를 크게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다양한 뉴스미디어 이용은 정치적 대화의 자원이 되고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Mutz, 2006)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인터넷 이용에 할애하는 대학생들을 포함한 젊은 유권자들은 인터넷 상의 정치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 인터넷이 그들의 정치적 학습과 참여증진에 효과적이다(Gibson & Lusoli, 2005). 선거와 같은 공적 이슈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의 이용은 사회신뢰를 형성하고 시민적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정치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증진시킨다(Tolbert & McNeal, 2003).

학계에서는 정치적 관심(Johnson & Kaye, 2000)이나 지식(Althaus & Tewksbury, 2000; Davis & Owen, 1998; Dalrymple & Scheufele, 2007) 등에 미치는 미디어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됐다. 미디어는 개인에게 수많은 쟁점 중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이슈에 주목하도록 함으로써(framing) 정보를 효율적으로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Scheufele, Shanahan, & Kim, 2002)을 통해 공적 사안에 대한 인식과 지식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Scheufele, Shanahan, & Kim, 2002).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미디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정치적 관심이나 활동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포털과 SNS의 선거를 비롯한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활동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신문구독이나 텔레비전 시청 행위와 포털이나 SNS 이용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금희조·조재호, 2015)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라 생각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대 총선 캠페인에서 대학생 유권자들의 포털과 SNS 이용을 통한 20대 총선거 관심과 선거활동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했다. 이어 선거관심과 선거활동 참여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미디어 변인으로는 포털과 SNS(트위터) 이용이 채택됐다. 선거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관심과 선거활동참여 변인 등으로 구성됐다.

## 2. 이론적 논의

### 1) 포털 이용과 정치참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이성적 접근이므로 유권자들의 알권리 신장에 최적의 방법으로 간주되었다(이현우, 2000).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은 정치적 인지수준과 실제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lthaus & Tewksbury, 2000). 지난 2008년 대통령 예비선거 기간동안 미국 인터넷 이용자의 46%가 선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ainie & Smith, 2008). 비교적 초창기 인터넷 연구에 따르면 이용자의 약 90%가 정치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등(Johnson & Kay, 1998) 인터넷은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ennett & Fielding, 1999). 이런 경향은 인터넷이 공중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Davis, 1999). 이같은 경향은 이용자들의 인터넷에 대한 신뢰성이 전통매체보다 높기 때문이었다(Johnson & Kaye, 1998).

인터넷의 관문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됐던 포털 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뉴스 소비의 채널로 이용하면서 포털 사이트 뉴스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뉴스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른 접근 편리성과 다양한 매체로부터 제공되는 뉴스와 정보의 다양성, 그리고 지속적인 뉴스의 업데이트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임종수, 2005). 또한 포털 뉴스의 이용과 영향력 증가는 고유의 매체 특성을 바탕으로 정보제공과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드는 등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안정미, 2007).

### 2) SNS 이용과 정치참여

인터넷의 등장은 기존 미디어의 영향력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런 변화는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은미 외, 2011).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이용과 소통이 정치참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금희조·조재호, 2015).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정치참여도 활발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심홍진, 2012).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개인은 페이스북 멤버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페이스북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Valenzuela, Park, & Kee, 2009). 이용자 생성 콘텐츠와 즉각

적이고 광범위한 소통, 정보공유 비용의 감소, 월등한 동원능력 등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미디어(SNS)는 참여민주주의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Vissers & Stolle, 2014). SNS 이용은 정치효능감은 물론 참여와 긍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정기·금현수, 2012; 황유선, 2011).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통계적 유의성 차원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SNS의 이용은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 경제뉴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사회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하승태, 2012). 이 연구에 따르면 SNS 이용자의 이용목적은 그들의 정치·사회적 태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매우 유의한 독립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응답자들이 SNS를 정보적 혹은 비오락적 용도로 이용할수록 그들의 정치사회적 관심은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참여 역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의 정치적 영향력은 세계적 혹은 국내적으로 공직자의 선거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007년 프랑스 대선과 2008년 미국 대선, 그리고 영국의 2010년 총선에서 소셜 미디어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조희정, 2010). 지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 기간동안 인터넷 이용자들의 46%가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개설했다(Rainie & Smith, 2008). 지난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선 기간 중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20~40대가 트위터 여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2011년 10월 27일).

### 3) 연구가설

연구가설1은 SNS(트위터) 이용은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SNS(트위터) 이용은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3: 포털 이용은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4: 포털 이용은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5은 SNS(트위터) 이용은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어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6은 SNS(트위터) 이용은 포털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어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7은 SNS(트위터) 이용은 포털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어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8: SNS(트위터) 이용은 포털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어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방법론

#### 1) 설문조사

지난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 6일(수)에서 12일(화)까지 1주일 동안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언론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방식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설문조사가 실시되기 전날인 4월 5일(화) 2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최종 완성된 설문지를 이용해 32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응답이 누락된 항목이 많거나 불성실하게(response set) 작성된 일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4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채택됐다. 조사에는 포털과 SNS 이용, 선거관심, 선거활동참여와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됐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로는 성별, 나이, 부모 소득 수준과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됐다.

#### 2)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신뢰도분석

포털 이용 변인은 포털정치뉴스 및 포털경제뉴스 이용 등 두 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1주 동안 포털사이트(daum, naver, yahoo 등)의 총선 등 정치 관련 뉴스를 이용했다.” “지난 1주 동안 포털사이트(daum, naver, yahoo 등)의 경제 관련 뉴스를 이용했다.” 라는 진술문에 대해 “아주 조금(1)”에서부터 “아주 많이(5)”까지 5점 척도에 답하도록 했다. 변인을 구성하는 두 개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784로 나타났다.

SNS(트위터) 이용 변인은 트위터와 트위터의 정치 관련 내용 이용 등 두 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1주 동안 twitter를 이용했다.” “지난 1주 동안 twitter에서 총선 등 정치 관련 내용을 이용했다.” 라는 진술문에 5점 척도로 답하도록 구성됐다. 두 개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848로 나타났다.

선거관심 변인은 총선관심, 후보관심, 공약관심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총선에 관심 있다.” “내가 속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에 관심 있다.” “내가 속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나 정당의 공약에 관심 있다.” 라는 진술문에 대해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했다. 세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893으로 나타났다.

선거활동참여 변수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투표참여 독려나 공명선거 운동에 참여했다.”,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정치·선거 관련 토론에 참여했다.”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선거관심 변인과 마찬가지로 5점 척도에 답하도록 했다. 두 개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706으로 나타났다.

### 3) 탐색적 요인분석

주요 변인을 구성하는 11개 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거쳤다.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 방법을 채택했다. 회전방법은 Varimax를 사용했다.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요인만 추출되도록 설정했다.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 항목들이 4개 요인으로 분류됐다. 요인1에는 총선관심, 후보관심, 공약관심 등이 포함됐다. 요인1은 ‘선거관심’ 요인으로 명명됐다. 요인2에는 선거유세참관, 투표독려나 공명선거운동 참여, 정치·사회적 쟁점토론참여, 온라인토론참여가 포함됐다. 요인2는 ‘선거활동참여’로 명명됐다. 요인3에는 트위터이용, 트위터정치내용 등이 포함됐다. 요인3은 ‘트위터이용’으로 명명됐다. 요인4에는 포털정치뉴스, 포털경제뉴스 등이 포함됐다. 요인4는 ‘포털이용’ 요인으로 명명됐다. 이들 4개 요인들의 총 누적 분산은 75.639%로 나타났다.

<표3-1> 주요 변인들의 요인분석

	요인1 선거관심	요인2 선거활동참여	요인3 트위터이용	요인4 포털이용
포털정치뉴스				.789
포털경제뉴스				.928
트위터이용			.931	
트위터정치 내용이용			.917	

총선관심	.866			
후보관심	.911			
공약관심	.883			
선거유세참관		.708		
투표독려공명				
선거참여		.754		
쟁점토론참여				
제언		.704		
온라인토론		.837		
초기고유값	3.596	2.150	1.445	1.129
설명분산%	32.693	19.543	13.139	10.264
누적분산%	32.693	52.236	65.375	75.639

#### 4) 확인적 요인분석

<표3-2>에서 보는 바와같이 최초 적합도 지수 Q값(CMIN/DF)이 1.973( $\leq 3$  우수), GFI .960( $\geq .90$  우수), AGFI .930( $\geq .85$  우수), RMR .032( $\leq .05$  우수), CFI .974( $\geq .90$  우수), RMSEA .057( $\leq .05$  우수)로 나타났다. RMSEA 지수가 적합도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항목의 제거 과정을 통해 최초 모형을 수정했다. 제시된 것처럼 수정후 적합도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RMSEA 지수가 .049로 우수하게 산출됐다. 또한 Q값, GFI, AGFI, RMR, CFI 지수가 모두 향상됐다. 따라서 수정후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의 결과치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여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확보된 것으로 간주됐다.

<표3-2> 측정모형의 적합도

모형	Q값	GFI	AGFI	RMR	CFI	RMSEA
수정전 측정모형	1.973	.960	.930	.032	.974	.057
수정후 측정모형	1.713	.976	.948	.030	.988	.049

아래 <표3-3>는 수정 후 최종적인 CFA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다.

<표3-3> CFA결과

변수	측정문항	표준화 회귀계수	p값
포털이용 (POR)	POR3<--POR	.584	***
	POR2<--POR	1.104	

트위터이용 (TWT)	TWT2<--SNS	.887	***
	TWT1<--SNS	.854	
선거관심 (INTEREST)	INT3-->INTEREST	.837	***
	INT2-->INTEREST	.918	
	INT1-->INTEREST	.825	
선거활동참여 (ACT)	ACT3<--ACT	.828	***
	OFL2<--ACT	.665	

\*\*\* p<.001

## 4. 결과

### 1)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4-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남자 112명(41.5%) 여자 158명(58.5%) 이었다. 1학년 53명(19.9%) 2학년 47명(17.7%) 3학년 60명(22.6%) 4학년 106명(39.8%) 이었다. 나이는 최소 나이 19세가 63명(24.3%) 최고 나이 25세가 15명(5.8%)이었으며 평균 21.31세였다. 부모의 소득수준은 1(1백만원이하)~6점(5백만원 이상) 척도로 답하도록 했는데 평균 3.88로 3백만~4백만원에 가까운 정도였다. 정치성향은 1(강한보수)~5점(강한진보) 척도로 답하도록 했는데 3.31로 나타나 중도를 나타내는 3점 보다 다소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 별	남	112(41.5)	나 이	19	63(24.3)	소 득	~100만	8(3.4)	정 치 성 향	강 한 보 수	6(2.3)																												
	여	158(58.5)		20	38(14.7)		100~	27(11.6)																															
학 년	1	53(19.9)	21	48(18.5)	300만	69(29.6)	300~	50(21.5)	중 도	119(46.5)																													
											2	47(17.7)	22	33(12.7)	400만	41(17.6)	500만	38(16.3)	진 보 경 향	95(37.1)																			
																					3	60(22.6)	23	31(12.0)	400~	41(17.6)	500만	38(16.3)	강 한 진 보	11(4.3)									
																															4	106(39.8)	24	31(12.0)	500만	41(17.6)	38(16.3)	38(16.3)	38(16.3)

주: 셀 안의 앞 숫자는 응답자 수, 괄호안 숫자는 비율(%)을 나타냄

##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model fit)를 판단하기 위해서 SEM분석을 실시했다. SNS(twitter) 이용의 구성요소가 포털과 선거관심을 매개로해 응답자들의 선거활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4-2>에 제시된 바와 같다.  $\chi^2$ 는 35.972(df=21, p=.022,  $p \geq .05$ 가 바람직),  $\chi^2$ /자유도(Q값)=1.713( $\geq .90$ 이 바람직), GFI=.976( $\geq .90$ 이 바람직), AGFI=.948( $\geq .80$ 이 바람직), RMR=.030( $\leq .05$ 가 바람직), CFI=.988( $\geq .90$ 이 바람직), RMSEA=.049( $\leq .05$ 가 바람직) 등 이었다. 구조모형은 SEM 분석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으로 삼는 지표들과 비교할 때 적합도가 만족스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 연구모형의 적합도

구분	Q값	GFI	AGFI	RMR	CFI	RMSEA
모형적합도	1.713	.976	.948	.030	.988	.049

아래 <표4-3>는 수정 후 최종적인 CFA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다.

## 3) 가설검증

연구가설 검증 결과는 <표4-3>과 같다. 우선 연구가설1은 SNS(트위터) 이용은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가설은 기각됐다. 연구가설2는 SNS(트위터) 이용은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 이었다. 이 가설은 채택됐다(표준화계수=.294, t값=3.315,  $p < .001$ ). 연구가설 1 & 2와 관련, 응답자들의 트위터와 같은 SNS 이용은 인지적 차원의 선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행위적 차원의 선거관련 활동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연구가설3은 포털 이용은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 가설은 채택됐다(표준화계수=.469, t값=7.517,  $p < .001$ ). 연구가설4는 포털 이용은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 데 이는 기각됐다. 이들 두 가설과 관련, 응답자들의 포털(정치, 경제 내용) 이용은 행위적 차원의 선거활동참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인지적 차원의 선거관심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응답자들의 트위터 이용과 포털 이용은 각각 선거활동 참여와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대조적인 형태를 보인 셈이다.

연구가설5은 SNS(트위터) 이용은 포털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어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 가설은 채택됐다. 즉 트위터 이용은 포털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표준화계수=.163, t값=2.572, p=.01), 이어 포털이용은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쳤다(표준화계수=.469, t값=7.517, p<.001). 트위터를 많이 이용하는 응답자들은 포털(정치, 경제 내용)을 많이 이용하고, 이런 미디어 이용행위는 20대 총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연구가설6은 SNS(트위터) 이용은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어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됐다. 가설1의 검증에서 드러난 바와같이 트위터 이용은 선거관심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관심에서 선거활동참여로 유의한 경로가 발견됐다(표준화계수=.152, t값=1.916, p=.05).

연구가설7은 SNS(트위터) 이용은 포털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어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됐다. 가설5 검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트위터 이용은 포털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포털 이용은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힘들었다.

연구가설8은 SNS(트위터) 이용은 포털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어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어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가설은 채택됐다. 즉 트위터 이용은 포털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포털이용은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어 이 변인은 선거활동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연구가설2의 검증에서 나타났듯이 트위터 이용은 선거활동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포털이용과 선거관심 변인을 통한 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4-3> 가설검증

가설(경로)	표준화계수	t값	p값	채택여부
<가설1> TWT-->INTEREST	--	--	--	기각
<가설2> TWT-->ACT	.294	3.315	***	채택
<가설3> PORTAL-->INTEREST	.469	7.517	***	채택
<가설4> PORTAL-->ACT	--	--	--	기각
<가설5> TWT-->PORTAL-->INTEREST	.163/.469	2.572/7.517	**/**	채택

<가설6> TWT-->INTEREST-->ACT	--/.152	--/1.916	--/*	부분채택
<가설7> TWT-->PORTAL-->ACT	.163/--	2.572/--	**/--	부분채택
<가설8> TWT-->PORTAL-->INTEREST-->ACT	.163/.469/.152	2.572/7.517/1.916	**/**/*	채택

\*\*\* p<.001 \*\* p≤.01 \* p≤.05

## 5. 결론

공동체 구성원들 간 연대나 네트워크의 구축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위터 등 SNS의 이용은 정치나 선거와 관련된 온라인토론에 참여하거나 투표참여 촉구활동이나 공명선거운동에 참여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선거활동참여 형태는 궁극적으로 투표참여와 같은 현실적 정치, 사회적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트위터 특히 국회의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의 정치 관련 내용의 트위터 이용은 투표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제도권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선거에서보다 다양하고 심각한 쟁점이 부각됐던 20대 총선에서 대학생 유권자들의 포털과 SNS 이용이 선거관심뿐만 아니라 선거활동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한점은 의미 있다. 선거 캠페인 기간동안 SNS와 포털 등 다양한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은 대학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등 민주적 정치공론장 제공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적 무관심 집단으로 치부되곤 했던 젊은 유권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기성세대 사회구성원들과 수평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선거와 같은 공적사안에 대한 관심과 활동참여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총선 관련 혹은 일반적인 트위터 이용은 선거 활동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포털이용을 통한 선거관심 변인을 거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이었다. 또한 포털사이트 변인이 선거 관련 활동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선거관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선거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트위터 이용이 선거관심 변인에, 포털이용이 선거활동참여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채택한 연구모델의 한계점

일 수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척도화 과정을 통해 유의한 관계가 도출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금희조 & 조재호(2015).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과 대화가 정치지식, 효능감, 참여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의 종류와 대화채널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3). 452-481.
- 김은미·이동후·임영호·정일권(2011). SNS 혁명의 신화와 실제: 토크, 플레이, 러브의 진화. 나남.
- 문원기·이수범(2015). 소셜 미디어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국내문헌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언론학보』. 59(4). 133~162.
- 심홍진(2012). 소셜미디어의 정치참여 효과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이론』. 8권 3호. 6-52.
- 이재신·이영수(2009). 정치정보 습득, 관여도, 정치적 불만과 정치참여 유형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53권 2호, 183~205.
- 이정기·금현수(2012). 정치 팟캐스트 이용이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6권 5호. 163-189.
- 조희정(2010). 트위터와 전자민주주의: 트위터의 국내외 정치적 활용사례와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 하승태(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이 수용자의 정치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SNS 이용빈도 및 이용목적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 12권 4호, 575~606.
- 황유선(2011). 트위터 이용이 사회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권 6호. 56-81.
- Althaus, S. L. & Tewksbury, D.(2000). Patterns of Internet and traditional news media use in a networked community. *Political Communication*. 17. 21-45.
- Bimer, B. A.(2003). Information and American democracy: Technology in the evolution of political power.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rymple, K. E. & Scheufele, D. A.(2007). Finally informing the electorate?:

- How the Internet got people thinking about presidential politics in 2004? *The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2(3). 96-111.
- Davis, R. (1996). *The press and American politic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Inc.
- Davis, R. & Owen, D.(1998). *New media and American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ibson, R. & Lusoli, W. S.(2005). Online participation in the UK: Testing a contextualized model of Internet effects. *Policy Studies Association*, 7(4).
- Johnson, T. J. & Kaye, B. K.(2000). Democracy's rebirth or demise?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on political attitudes. In D. A. Schultz(Ed.), *It's show time! Media, politics, popular culture*(pp. 209-228). New York: Peter Lang.
- Mutz, D. C.(2006). *Hearing the other side: Deliberative versus participatory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w Research Center(2016). *New use across social media platforms 2016*.
- Rainie, L. & Smith, A.(2008). *The Internet and 2008 election*. Pew Research Center. [www.pewinternet.org](http://www.pewinternet.org).
- Rosenstone, S.J., & Hansen, J. M.(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 Scheufele, D. A., Shanahan, J., & Kim, S. H.(2002). Who cares about local politics? Media influences on local political involvement, issues awareness, and attitude strength. *J & MC Quarterly*, 79(2), 427~444.
- Stamm, K. R., Emig, A. G., & Hesse, M. B.(1997). The contribution of local media to community involvement. *J&MC Quarterly*, 74, 97~107.
- Tolbert, C. J. & McNeal, R. S.(2003). Unravelling the effects of Internet on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6(2).
- Valenzuela, S., Park, N., & Kee, K. F.(2009). Is there social capital in a social network site?: Facebook use and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tru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4). 875-901.
- Vissers, S. & Stolle, D.(2014). The Internet and new mod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Online versus offline particip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7(8). 937-955.